

다산포럼



김태희
실학박물관 관장

일본은 왜 패망했는가?

먼 조선의 평양으로 향했다. 1944년 7월 이란 시기는 살아 돌아올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절박한 시기였다. 일본이 오죽 했으면 도쿄에 학생까지 전선에 투입했을까. 그는 논문을 ‘유서’처럼 남기고 떠났다고 회고했다.

그 논문을 비롯하여 이후 논문에서 계속된 그의 문제의식은 태평양전쟁의 개전과 패배 그리고 대일본제국 붕괴의 원인과 관련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표면상 근대화를 이루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전근대적-봉건적 체질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천황 주권의 총체인 이른바 ‘국체’라는 것이 절대 권위를 휘두르면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설정이라는 것, 일본의 근대가 서구의 근대를 모델로 본뵈는데도 서구의 근대와는 동떨어진 독특한 것이라는 게 그의 논지였다. 서구 근대 시민사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 불만인 평가도 없지 않았다.

근대란 무엇인가? 근대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소산이다. 봉건적 신분 질서를 종식시키고 상하 구별 없이 민족의 이름으로 구성원을 단결시켰으며, 공장제 기계 생산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공교롭게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이탈리아·일본은 모두 민족국가,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후발 주자였다. 지도층의 각성과 위로부터의 노력으로 열심히 선진 국가를 따라잡는 데 성공한 듯했지만, 뭔가 빠졌다. 그것은 외부의 식민지가 아녘다. 내부의 변혁, 즉 시민혁명 내지 아래로부터의 변혁이 없었다. 그것은 근대가 누리는 외형적 물질이 아니었다. 근대를 지탱하는 내면적 정신이 결여되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시민의 힘이 부족했다.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비록 파시스트들에게 유린당했지만, 다행히 그 정신은 패전 이후 더 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전쟁 중에 저지른 반인권을 범죄에 관해서는 철저히 사과하고 있다. 일본은 달라 보인다.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전쟁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행세했다. 아베 정권은 어렵게 이뤄진 사과의 언행조차 물리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 다시 전쟁하는 국가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근대화란 것이 우리 세

계의 지고의 가치는 아니다. 이미 근대화의 심각한 폐단을 경험했다.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유럽은 전쟁의 끔찍한 참화를 겪었다. 유럽의 통합은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연적 노력이다. 비록 지금 흔들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켜 내야 할 평화의 길이다. 또한 과도한 공업화가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지구의 안위를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도 이르렀다. 근대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했던 과거가 된 것이다.

동북아에서 한편으론 여전히 근대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근대의 어리석음을 저지르려 한다. 위정자들이 걸맞으면 민족 감정을 일으켜 외부의 이슈로 내부적 의도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도 그런 성격이 짙다. 그때도 그랬다. 이에 민족 감정보다만 대응하는 것은 과거 회귀를 일조할 수도 있어서 현명하지 않다.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건강한 공동체의식과 함께 동북아 시민들의 섬세한 인권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한 때다.

기고

아파트 대규모 정전 예방을 위한 한전의 역할



김철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

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있다. 지난달 23일 고계 설비 고장으로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어 1200여 세대가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은 것처럼 아파트 단지 구내 고장이 바로 그 사각지대이다.

아파트는 한전의 특고압 전기를 공급받아 자체적인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 설비를 통해 각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구내 정전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다수 입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기 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전 232건 중 169건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되었으며, 광주·전남에서도 25건이 발생하였다. 아파트 구내 고장은 동일 공급 선로의 타고객까지 정전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예방이 절실하다.

이러한 아파트 구내 정전의 주요 원인

은 노후 및 용량 부족 전기 설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교체에 소극적인 점을 꼽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설비가 20년 이상 노후되고 세대당 용량이 3kW 미만인 아파트는 5000여 단지이며, 광주·전남 지역은 400여 단지로 전체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파트층의 경제적 부담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전력과 정부가 아파트 대규모 정전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전은 아파트 노후 전기 설비 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아파트에 작년 72개 단지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는 264개 단지 4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한전 단독 사업에서 국고 지원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력 기반 자금 19억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층의 부담을 작년까지의 총사업비 50%에서 20% 수준으로 대폭 낮추었다.

아파트 구내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한전의 노력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매년 폭염 전에 아파트 전기 설비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 초음파 진단 등 과학화장비를 활용하여 무상 점검을 시행하고 취약지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측과 협업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구내 정전이 발생할 경우 한전은 설비 복구를 위한 인력·비상 발전차 지원, 한전 비상 보유 자재를 활용한 복구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점은 아파트 노후 전기 설비 개보수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전기 설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청춘 특·특

‘웃음꽃 피는 아시아’ 2019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이현정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3년

원 등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019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장르나 형식,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아마추어·전문 예술인과 시민이 자유롭게 만들어 가는 토요일의 유희한 문화 난장, 광주 대표 브랜드 ‘광장 문화 축제’다.

프린지 구성은 프린지 플랫폼, 프린지 공연·경연 프로그램, 프린지 참여·체험 세 가지로 나뉜다. 프린지 플랫폼은 안내와 홍보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린지 안내 공간에서는 전당 공연 안내를 광주의 다양한 행사들을 홍보한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그것이며, 이러한 행사와 연계해 프린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프린지 공연은 봄·여름·가을 시즌으로 나뉜다. 봄 시즌은 ‘문화 소생’이라는 주제로 ‘봄의 전령’과 ‘프리뷰 쇼’를 진행했다. 여름 시즌은 ‘문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마인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가을 시즌에는 ‘애환 본색’이라는

주제로 ‘파이널 쇼’, ‘프린지 인터내셔널’, ‘작품상 어워즈’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웃음꽃 아시아 시리즈 ‘한국 전통의 미소’와 프린지 창작 공연 ‘광주 감동 시리즈’인 5·18 시민군상마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5·18 광장에는 ‘아트 박스’를 비롯해 ‘예술 퍼포먼스’, ‘마임’ 등의 포토포지 준비되어 있다. 이 포토 존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아주는 프린지페스티벌의 효자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광 명소 조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전당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문화와 도시 재생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그 자체로 도시의 관광 상품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전국화 및 아시아화

를 통해 문화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앞장서서 자발적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프린지 페스티벌은 독특하고 수준 높은 광주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양성과 융통함을 전하고 창조성과 포용성이 풍부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형성에 기여한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정해진 틀이 없다. 예술인과 시민이 자유롭게 만들어 가는 ‘문화 축제’이다. 문화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평소 문화 예술을 어렵게 생각했다면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그 거리를 좁혀 보는 건 어떨까? 페스티벌을 보고 난 후 작가들, 공연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될 때, 가라비데 웃 짓어들 듯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프린지 페스티벌의 봄·여름 시즌은 끝났지만 아직 가을 시즌이 남아 있다. 특히 올 가을 주제인 ‘애환 본색’은 ‘파이널 쇼’, ‘프린지 인터내셔널’ 등 가장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다가오는 가을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해 프린지의 힘과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땀 올리는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집중 지원을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출범식이 오늘 열린다.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나선 지 5년여 만에 투자자들로 구성된 사업 추진 주체가 꾸러져 본격적인 공장 설립에 나서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2시 광주 그린카진 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다. 출자 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총회에서는 대표이사과 법인 명칭 및 정관을 확정한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2시 광주 그린카진 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다. 출자 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총회에서는 대표이사과 법인 명칭 및 정관을 확정한다.

이명범 등기를 하고 이날 내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신설 합작법인은 테스크포스(TF) 성격의 조직을 꾸려 광주 및 그린산단 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설계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연내 자동차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작법인 출자자는 36개 기업 및 단체로, 이들은 모두 2300억 원에 이르는 자기 자본금의 입금을 완료했다. 특히 광주 시(483억 원)와 현대차(437억 원)에 이어 광주은행이 260억 원을 출연해 3대 주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은행의 자본이 30%를 넘어서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게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이처럼 투자자 모집과 합작법인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국내 최초의 노사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강원형, 군산형, 구미형, 울산형 일자리 사업들이 모두 자동차 관련 산업에 집중되면서 벌써부터 중복 투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선도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려면 중앙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당 특하면 거리로 지금이 독재시대인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거리로 뒤흔쳐나갈 것이라고 한다. 황교안 대표는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한민국 파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에 반발해 장외로 나섰다. 복귀한 지 3개월 만이다. 당시엔 여야 4당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장외투쟁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상상력 빈곤’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명분이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당 보좌진조차도 “돈 허튼 데 쓰지 말고 제발 정책연구와 대안을 만드는데 쓰자”며 장외투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역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권노름’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이

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논평이 날카롭다. “상승 가솔 제1야당의 무책임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쾌감이 극에 달해 왔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지금은 일본의 도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다. 국정감사도 곧 있게 되는 만큼 각종 현안들도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제1야당의 책무를 포기한 것은 당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율을 다시 결집, 당 지지율을 끌어올림으로써 9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지금이 독재 시대도 아닌데 뜬금없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아니 동의는커녕 국민 대다수의 등을 돌리게 할 것이 틀림없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제1야당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8·2 개개에 따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 후보자가 가진 정치적 함의가 크기 때문이다. 그는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기용됐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 극일(克日) 최전선에서 여론전을 선도하며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가 만약 인사청문회를 큰 내상 없이 통과하고 사법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가 정국의 향배는 물론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불가피한 셈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각박하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순탄하게 넘을지는 알 수 없다. 이미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말만치 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과거 강성 발언들은 각종 의혹들과 맞물리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개혁 이미지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는 부의 세습 및 양극화를 그동안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거액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비판한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또한 위장 전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특목고 규제 강화를 주장했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외고에 진학한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를 반영하듯 보수 야당들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

류되는 정의당과 평화당마저 조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선화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여러 의혹들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면서 “다만 ‘국민 정서상 조금의 과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민심의 검증이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민심의 눈높이에 맞게 해소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조국 청문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건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